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2호 [루게 제23254호] 주제 99 (2010)년 10월 29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일심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리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제힘을 믿고 자체의 힘으로 경제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이미 마련되어있는 경제적재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생산에서 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

공동사업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인민경제

함경남도안의 공장, 기업소, 광산들

함경남도안의 수십개의 중요 공장, 기업소, 광산들에서 당 대표자회의와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년간계획수행에서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의 지시와 장군님께서 현지지도하신 단위의 앞장서서 현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동성기계련합기업소와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 함흥연예군인수지일용공공장을 비롯한 전세위인들의 불멸의 명도업적이 뜨겁게 빛나고 있는 현지지도단위들에서는 지난 9월말현재 년간계획을 석달이상이나 앞당겨 지표별로 수행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도안의 중요공장, 기업소일꾼들과 근로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말씀과 공동사업과 공동구조에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대대적 열의를 불어넣고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를 우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위대한 변혁의 해로 빛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을 벌려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고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자랑찬 성과는 선군혁명령도로 그러침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경남도안의 중요공장,

총공세의 불길높이 이룩한 자랑찬 로력적성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년간계획을 수행

들은 《당일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대표자회의와 당창건 65돐을 높은 정치적의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었다.

년간계획수행에서는 나라의 위대한 대상설비생산기지인 동성기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이 모범을 보였다. 우리 당에 무한히 충실한 총성의 로동계급은 위대한 장군님께 다진 맹세를 지켜 지난 9월 7일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수행하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함흥청년전기기구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도 지난 9월 30일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넘쳐 수행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각진 전기기구를 생산하여 보내주었다. 설비조립련합기업소와 함남항, 함흥연예군인수지일용공공장과 함흥구두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도 지난 9월 30일

년간계획을 지표별로 앞당겨 수행하였다. 또한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기들 앞에 맡겨진 생산계획을 수행하면서 흥남가스화대상공사를 비롯한 많은 공사장들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웠다.

단천광업건설련합기업소와 선천강건기공장, 광명성제염소, 양화수산사업소, 서호수산사업소, 함흥전직공장, 금야전직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도 공동사업과 공동구조에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분초를 쫓아가며 힘찬 투쟁을 벌려 지난 9월 30일 년간계획을 끝내는 위훈을 창조하였다.

상봉, 리원, 백파위광산, 함남대홍수산기업소, 함남구두공장, 함흥제사공장을 비롯한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서도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특파기자 박동석

공장, 기업소들의 일꾼들은 년초부터 생산계획을 높이 세우고 내부예비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신민주주의일용공공장에서 는 압출기에 자동도조장치치를 새로 받아들이고 보기 좋고 쓸모있는 수지일용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각종 형태를 새로 제작하거나 개조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8월 30일까지 년간계획을 103% 앞당겨 115%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신의주전직공장, 신의주연예군인전직공장들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신민주주의일용공공장에서 는 압출기에 자동도조장치치를 새로 받아들이고 보기 좋고 쓸모있는 수지일용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각종 형태를 새로 제작하거나 개조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8월 30일까지 년간계획을 103% 앞당겨 115%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신의주전직공장, 신의주연예군인전직공장들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신민주주의하마공공장에서 도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추진하면서 현실적인 투쟁을 벌려 년간계획을 석달이상

앞당겨 115%로 넘쳐 수행하였으며 신의주전직공장, 신의주연예군인전직공장들에서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신민주주의일용공공장에서 는 압출기에 자동도조장치치를 새로 받아들이고 보기 좋고 쓸모있는 수지일용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각종 형태를 새로 제작하거나 개조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8월 30일까지 년간계획을 103%

로 넘쳐 수행하였다. 신민주주의일용공공장에서 는 압출기에 자동도조장치치를 새로 받아들이고 보기 좋고 쓸모있는 수지일용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각종 형태를 새로 제작하거나 개조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려 8월 30일까지 년간계획을 103%

특파기자 김기두

높임으로써 9월 5일까지 년간계획을 102%로 빛나게 완수하였으며 신민주주의일용공공장에서는 생산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시안의 많은 가내생산협동조합들에서도 내부예비를 끊임없이 탐구하면서 증산투쟁을 서로 경쟁적으로 힘있게 벌려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뜻깊은 올해에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공장, 기업소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승리의 신심높이 최고 생산년도수준을 돌파할 결의 밑에 최후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신민주주의의 공장, 기업소들

신민주주의 7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창건 65돐을 맞아 년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혁신을 일으키었다.

계획수행기간 이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10월의 대축전을 위한 자랑찬 로력적성과 빛날 열의밑에 생산정상의 불길높이 세기 위하여 줄기차게 투쟁하여 집단지적혁신을 일으키었다.

혁명의적대고조의 불길높이 대상설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정, 강냉이가공공정은 생산공정의 현대화수준에서나 생산되는 제품의 질적수준에서 다른 단위들의 본보기로 되고있다. 도자재의 원료조건을 충분히 타산하여 대당량 최신풀비율로 장비하고 위생문화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꾸려놓은 이 생산공정은 밀과 강냉이가공공정을 마음먹고도 최적생산할수 있어 많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은행나무 잎, 보리차들도 좋지만 파자, 빵, 국수, 물엿 등 밀과 강냉이가공공정은 맛있게 영양가 높은 식료가공품으로 나날이 인기가 오르고있다.

지금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로장제생산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벽하고 파자, 국수생산공정의 CNC화를 완성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청봉종합식료공공장에서 량강도의 특산물인 자자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료가공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

자들과의 창조적협동으로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있다. 종합식료공공에서는 갑자기가공품뿐 아니라 참취, 곰취, 더덕장절임과 갖가지 말린 산나물 및 산과일가공품들도 그흔히 갖추고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는 독특하고 생산한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도안의 근로자들에게 공급하고있다.

백송종합식료공장, 백운산 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각 도 종합식료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부단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새로 조립한 현대적인 생산공정에서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총공격을 벌리고있는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애국적열정과 헌신적 노력투쟁에 의하여 갖가지 종합식료공공장에서 증산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퍼졌다.

본사기자 명흥숙

심장에 남는 일꾼

◇ 얼마전에 당에 실렸던 경원군당 책임비서 서길호동무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도 사람들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당일꾼의 전형으로 내세워주신 그는 정말 쉽지 않은 일꾼이다.》, 《일꾼이기 전에 참인간이고 애국자이다. 이런 당일꾼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이 부럽다.》, 《그의 모범을 따라 우리 당일꾼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참된 일꾼이 되겠다.》...

◇ 우리는 일꾼들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에서 일자리를 폭족 내야 한다. 3월 5일청년광산 지배인 련일운동부는 설비의 대형화,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훌륭히 실현하면서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불과 맺쳐사이에 광산을 굴지의 정광생산기지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렸다.

우리 시대에는 경원군당 책임비서와 3월 5일청년광산 지배인과 같은 일꾼들이 많아 야 한다. 그래야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일꾼들을 우리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따른다. 모든 일꾼들이 자기의 혁명초심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높은 실적을 올릴 때 우리 조국은 인민의 리상이 실현된 사회주의강성대국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장철일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더 좋게! 현대적인 종합식료공공들이 은을 낸다

각 도들에 새로 건설된 종합식료공공들이 생산활동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각 도들에 건설된 현대적인 종합식료공공들에서 사탕, 파자, 빵, 국수, 장절임, 단물, 차 등 수십종에 달하는 식료가공품을 특색있게 생산공공함으로써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근로자들을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공급하여 식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을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해에 삼일포특산물공공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이 공공에서 창조된 환경의 불꽃이 온 나라에 타번지도록 선군시대의 식료가공공업발전의 휘황한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러하여 짧은 기간에 무진장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하여 식료가공공의 공업화를 실현한 삼일포특산물공공과 같은 종합식료공공들이 각 도들에 일떠서 조립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의 올해에 현지지도하시면서 새로 조립한 장자산종합식료공공을 찾으며 도처에 건설된 종합식료공공들의 생산활동에서 나서는 강령적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각 도의 일꾼들과 종합식료공공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특색있는 식료가공품을 맛있게 영양가 높게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 관철에 떨쳐나 남다른 위훈을 창조해가는 장자산종합식료공공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생산과 기술혁신, 생산문화와 생활문화화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달려나가고있다. 공장일꾼들은 과학적인 기업

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원료, 자재보장과 설비관리, 로력관리 등을 보다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CNC화된 현대적인 생산공공들이 큰 은을 내도록 하고있다. 도자재의 원료조건을 충분히 타산하여 대당량 최신풀비율로 장비하고 위생문화를 철저히 보장할수 있게 꾸려놓은 이 생산공정은 밀과 강냉이가공공정을 마음먹고도 최적생산할수 있어 많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으고있다.

공장에서 생산하는 은행나무 잎, 보리차들도 좋지만 파자, 빵, 국수, 물엿 등 밀과 강냉이가공공정은 맛있게 영양가 높은 식료가공품으로 나날이 인기가 오르고있다.

지금 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로장제생산공정을 과학기술적으로 더욱 완벽하고 파자, 국수생산공정의 CNC화를 완성할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청봉종합식료공공에서 량강도의 특산물인 자자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식료가공품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이곳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과학

자들과의 창조적협동으로 최신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있다. 종합식료공공에서는 갑자기가공품뿐 아니라 참취, 곰취, 더덕장절임과 갖가지 말린 산나물 및 산과일가공품들도 그흔히 갖추고 민족의 향취가 짙게 풍기는 독특하고 생산한 식료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도안의 근로자들에게 공급하고있다.

백송종합식료공장, 백운산 종합식료공장을 비롯한 각 도 종합식료공장의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모든것을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받들고 부단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박차고 새로 조립한 현대적인 생산공정에서 갖가지 식료가공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하고있다.

올해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하여 총공격을 벌리고있는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애국적열정과 헌신적 노력투쟁에 의하여 갖가지 종합식료공공장에서 증산의 동음이 더 높이 울려퍼졌다.

본사기자 명흥숙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대동강축전기공공에서— 김철우 찍음

무연탄알탄생산공정을 비롯한 건설대상들 완공, 준공식 진행

단천마그네사공공에서

【단천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 단천마그네사공공의 무연탄알탄생산공정을 비롯하여 새로 건설한 대상들이 준공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민 뜻깊은 시기에 이 대상들이 완공됨으로써 우리의 원료와 연료로 질 좋은 마그네사크림과 경소마그네사를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되였으며 인민생활향상과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준공식이 28일에 진행되었다. 광범기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판매부서 일꾼들, 공장종업원들, 공사에 기여한 건설자, 과학자, 연구사, 지원자

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광범기책임비서와 준공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것에 대한 김정은위원장께서는 단천마그네사공공을 여러차례 찾으신고 이날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말했다.

위대한 장군님의 구상을 받들고 펼쳐나선 단천마그네사공공들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단천마그네사공공로동계급은 무연탄알탄생산공정을 비롯하여 새로 조립한 대상들에 대한 기술관리를 짜고 들고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자들과 과학자, 기술자

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신심과 배짱을 가지고 제기되는 대상건설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나갈데 대하여는 강조하였다.

일꾼들은 기업관리와 경제조직사업들을 짜고들고 생산공정기술개선사업을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밀고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보고자는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나큰 공지와 자부심을 안고 맡겨진 본분을 다해나감으로써 뜻깊은 올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건설된 대상들을 돌아보았다.

정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모든것에는 시원이 있고 뿌리가 있다. 얼마전 3월 5일 청년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기는 사회주의리산촌이라는 말로써도 부족하다. 만점도 십만점도 아니고 백만점이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런 훌륭한 전변의 밑바탕에는 자기 고장, 자기 일터에 대한 뜨거운 애착심이 깔려있다고, 역시 애착문제라고 말씀하시었다. 강대한 조건의 힘을 파시한 서해의 기적-대계도간석지의 승전포성이 메아리처럼 그날에도 이런 승고한 뜻이 만사람의 심장을 울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남바다를 막고 아득히 뱀어간 제방을 바라보시면서 여기 평안북도에서 큰일을 해놓은것도 보고 작은 일을 해놓은것도 보았는데 어느 하나도 빈틈이 없다고, 이것은 애착심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자기 초소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일하면 기적이 일어 난다고 하시었다.

대비약의 시대는 위훈과 승리로 가득차 있다. 푸른 하늘에 우리의 위성이 날고 주체철과 주체섬유, 주체비료가 쏟아지고 우리 식 CNC 화가 새로운 경지에 올라서고 백리사파바다에 웃음꽃이 넘쳐나는 오늘의 경사와 사면밀에는 무엇이 있는가. 번영의 대문을 새창해 두드리며 시대를 격동시키는 창조적 선구자, 대조조부들의 값있는 삶과 투쟁의 첫걸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애착!

작고도 소박한 이 땅속에 한없이 위대한것이 있다. 여기에 강성대국건설대전이 벌어지는 오늘의 북한 시대가 비껴있고 당이 바라고 조국이 부르는 혁명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공화국공민으로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기기가 하는 일애 대한 애착을 가지고 당이 맡겨준 조소에서 정력적으로 성실하게 일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애착은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것과 떨어져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뜨거운 정이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장그려 바치고싶은 열렬한 헌신의 감정이다. 여기서 모든것이 시작된다. 소중한 알았을 때 아끼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을 빛내일 자기가 추구하며 시대를 뒤트는 강한 투쟁정신이 분출한다. 조국이라는 성스러운것도, 영웅적위훈이라는 고귀한것도, 강성대국건설이라는 거창한 위업도 다 그런것으로부터, 애착이라는 열렬한 사상감정으로부터 싹트고 자라게 되는것이다. 창조와 번영의 년대기를 펼쳤던 천리마시대

사람들을 보라. 수령이 찾아준 나의 공장, 내가 주인이 된 이 일터가 얼마나 고귀한가를 뼈결게 새기었기에 그들은 《다음교대를 위하여!》라는 구호 밑에 자기 기대에 망심을 묻고 깊은 산중에서 일하면서도 천리마기수의 노래를 자랑스럽게 부르며 비약의 한 시대를 열어놓지 않았던가. 자기 일터, 자기 고장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바친 땀, 그가 해놓은 일이 말해준다. 사회주의무용도원을 펼친 대후단이며 강성대국리산촌으로 솟아오른 미곡리와 동봉리에 가 보면 그 고장 사람들의 남다른 열의와 자부심을 뜨겁게 느낄수 있다. 강선과 김철, 남흥의 로동체계를 만나면 대조조의 기적을 우리가 앞에서 창조해간다는 강렬한 애착심과 경쟁심으로 불이 인다. 인간에게 있어서 애착만큼 고결한 세계는 없다.

자기가 하는 일이 조국과 후손세대와 하나로 잇닿아있으며 자기가 흘리는 땀방울이 당과 혁명의 크나큰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신성한 자각을 간직하게 될 때 것처럼 돋보이는 인간, 것처럼 강한 인간은 없을것이다. 탈곡장주변에 떨어진 한두알의 벼알도 무심히 스택치 못하는 모습,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히 꾸릴것인가를 두고 지혜를 합쳐가는 열정적인 목소리... 그것이 나라의 주인의 자각으로 승화되어 조국이 떠받치는 영웅이 되고 고향만이 잊지 못하는 개척자가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도, 한 인간의 인생도, 나아가서 민족의 번영과 혁명의 진전도 이것과 하나로 련결되어있다. 력사의 교훈에서도 우리는 되겨본다. 자기의것의 소중함을 보는 눈이 흐려지고 자기의것을 지키고 빛내려는 마음이 식어진데로부러 남의것에 현혹되고 결국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마저 흔들리게 되지 않았는가. 애착이라는 작고도 위대한 세계에 사회주의의 참다운 향기가 있고 이 땅의 혁명가들의 가장 값있는 존엄과 영예가 빛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애착이란 있을수 없다.

치열한 생존경쟁의 마당인 그 세계에서는 더 많은 처부를 위한 비열한 경쟁은 있어도 자기 일터, 자기 고장, 자기 일애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애착은 있을수 없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취약성이 있고 사회주의의 본질적 차이가 있다. 더없이 사랑하고싶은 나의 기대, 나의 포진 이 있고 마음껏 정을 쏟고싶은 우리 작업반, 우리 직장이 있으며 바치는 땀이 그대로 락이 되는 우리 고향, 우리의 땅이 있는것은 얼마나 행복한다. 조국과 후손세대와 하나로 잇닿아있으며 자기가 흘리는 땀방울이 당과 혁명의 크나큰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된다는 신성한 자각을 간직하게 될 때 이처럼 돋보이는 인간, 이처럼 강한 인간은 없을것이다. 탈곡장주변에 떨어진 한두알의 벼알도 무심히 스택치 못하는 모습, 우리 마을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히 꾸릴것인가를 두고 지혜를 합쳐가는 열정적인 목소리... 그것이 나라의 주인의 자각으로 승화되어 조국이 떠받치는 영웅이 되고 고향만이 잊지 못하는 개척자가 되는것이다.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도, 한 인간의 인생도, 나아가서 민족의 번영과 혁명의 진전도 이것과 하나로 련결되어있다. 력사의 교훈에서도 우리는 되겨본다. 자기의것의 소중함을 보는 눈이 흐려지고 자기의것을 지키고 빛내려는 마음이 식어진데로부러 남의것에 현혹되고 결국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마저 흔들리게 되지 않았는가. 애착이라는 작고도 위대한 세계에 사회주의의 참다운 향기가 있고 이 땅의 혁명가들의 가장 값있는 존엄과 영예가 빛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애착이란 있을수 없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 여러 나라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양 광 라

뒤르끼에 공화국 대통령
아브들라흐 굴라하

나는 뒤르끼에 공화국 국경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강화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0월 25일 평양

쁘 라 하

체스코공화국 대통령
와플라브 클라우스 각하

나는 체스코공화국 국경전에 즈음하여 당신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 99 (2010)년 10월 28일 평양

구바공화국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 출발

【평양 10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영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이 구바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2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경국동지와 김력구 인민무력부 부부장, 김철 조선인민군 상장,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주조 구바공화국 특명전대사와 페르나르도 베레스 메사 대사관 무관이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개성시 립한 당보들을 통한 위대성교양 리당의 한 인물은 농장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걸으며 우리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신 경애하는 위대성기사를 가지고 해설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다. 얼마전 비탈곡전투장에 나간 로동동원원 류 승 균

행복한가. 조국과 집단이라는 말이 자기자신과 떼어 없 이 이어져있고 너도나도 다같이 강성대국에서 살게 될 그날을 앞당길 일념으로 어깨걸고 걷는 투쟁의 길에서 더더욱 아름다워지는것이 우리 사회주의적인간들의 생활이다. 우리의 애착에는 단순한 향토애나 자기 직업에 대한 의무감만이 아닌 성스러운 세계가 있다. 《우리는 조국 땅 한끝에서 일하지만 아버지장군님께서 우리 고장, 우리 작업반을 지켜보시고계신다고 생각하면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농사일에 정이 폭 들고 하루빨리 리산촌을 꾸러 장군님께 더 큰 기쁨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조국의 최북단 크지 않은 농장에서 수십년째 월 녀성들의 힘으로 악약하게 농사를 잘 지어 온 나라에 소문이 난 경원평의 참된 주인들의 뜨거운 목소리는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려주는가.

자기 령도자를 받드는 마을이 일터에 대한 사랑과 정으로 꽃피고 혁명초소에 대한 헌신이 곧 령도자에 대한 충성으로 되는 심원한 세계기에 그것은 그리도 승고한것이 한계가 없는 거대한 힘을 낳는것이다. 한 민족, 한 나라 인민의 가슴속에 굳건히 자리잡은 애착심에는 가장 열렬한 애국정신을 지닌 혁명의 수령의 심장의 박동이 있다. 조국에 대한 불같은 사랑은 양심과 사회주의 이 땅을 으뜸의 강성대국으로 일떠세우실 위대한 구상을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서도 조국에 대한 열화같은 정을 토로하시고 차창밖으로 흘러가는 협동법의 전경을 보시면서도 자기가 바로 사회주의라고, 사회주의가 얼마나 좋은가고 기쁨에 넘치셨던 그이, 우리의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으면 소박한 직관들의 로얄에 품소 경의를 드리고 폭스의 땅에를 완전히 벗어던지게 된 주체철 사변을 두고 그것이 단축해하시었으랴. 자신의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그 애국의 불결을 인민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며 우리 장군님 걸으신 길 그 얼마이던가. 승죽은 공장을 찾으며 주축이든 가슴들에 용기를 주시며 소생의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전사자들이 해놓은 일이라면 수천리길을 거기에 달려가서라도 다 보아주시 우리 장군님, 찬바람 불어치는 그날에 걸으셨던 포진길을 비바람 맞으시며 다시 걸으시고 풍요한 계절에 또다시 걸으시며 한해 농사의 경회와 기쁨을 함께 찾아주시 때 인민은 얼마나 감격에 목매 었던가.

사랑으로 이어진 백두령장의 전선길

위대한 백두령장의 손길아래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인민군대는 오늘 조국번영의 일대 전진기를 펼쳐나가는 대고조전군의 일대에서 자주적근위병의 존엄과 위용을 떨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일성동지의 올바른 령도의 결과입니다.》 수성성상에 말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군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군인대중을 중심에 놓고 사랑과 믿음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사랑의 강군, 신병의 강군으로 키우신 불멸의 자욱으로 빛나고있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으시는 초소와 고지마다에서 군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이야기는 오늘도 친한 군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 고있다. 어느때인가 끊임없는 전선길 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전선에 위치한 판문점초소의 군인들을 찾아 떠나시던것은 깊은 밤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퍼그나 흘러 장군님을 모신 차가 목적지를 거의 가까이하였을 때였다. 어둡숙을 누비며 전속으로 달려던 차가 갑자기 멈춰섰다. 잠시후 차에서 내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서 새벽공기를 마시 며 좀 쉬었다 가라고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그이를 우러렸다. 밤급전까지만 하여도 최전연의 군인들이 보고싶다고 하시 며 길을 재촉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었다. 어둠에 잠긴 주변은 그야말로 고요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 들에게 너무 일찌기 떠나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아직 아침기 무를, 너무 울지 마오, 는 동무들이 보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소라고 하시며 그들을 따듯이 고무려해주시었다. 존엄하고도 시련에 찬 선군 혁명령도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 리고있다고, نحن 아무리 많이 내리고 밤이 깊었다 해도 꼭 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날밤 쏟아져내리는 눈길을 헤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시 부대에 찾아오신 사연을 알게 된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격정이 파도쳐들었다. 이날 부대의 장병들은 콧물

을 머금고 눈물을 흘리며 달리던 차를 멈추시고 초겨울의 맹전 주위에서 새날을 맞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정병 그이의 모습은 가물쳐 질한 전화파의 나날 이제 우리가 잊어가면 병사들의 잠을 깨울 수 있으니 좀 기다려다 가자고 하시며 잠자는 병사들을 위해 찬바람부는 길가에서 새날을 기다려주시었다. 이날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장군님을 자기들의 초소에 모신 판문점초병들은 추추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며 그이를 열광적으로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쏟아져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 며 소리없는 《탄세!》의 웨 침을 퍼뜨리는 초병들에게 동 무를, 너무 울지 마오, 는 동무들이 보고싶어 이렇게 찾아왔소라고 하시며 그들을 따듯이 고무려해주시었다. 존엄하고도 시련에 찬 선군 혁명령도의 시간들이 우리를 기다 리고있다고, نحن 아무리 많이 내리고 밤이 깊었다 해도 꼭 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날밤 쏟아져내리는 눈길을 헤치시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시 부대에 찾아오신 사연을 알게 된 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 격정이 파도쳐들었다. 이날 부대의 장병들은 콧물

날, 마른날, 눈보라길, 진필 길을 가지지 않고도 조국의 고지와 초소들을 찾으시어 병사들의 가슴마다에 친어버이정을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처럼 격정의 눈물속에 노래를 불렀다. 창으로 지난 10여년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끊임없이 이어가신 전선길은 우리 군인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수놓 아진 애국헌신의 장정이였으며 그 길 위에서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총대 총 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선군혁명의 진취투사들로 지라갔다. 하기에 오늘 우리 군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혁명무 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크 나큰 공지를 안고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노래를 심장으 로 부르며 조국의 방신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가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장제에서 새로운 천 리마속도, 회전속도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 있다. 백두령장의 사랑과 믿음으로 더욱 억세어진 무적필승의 혁 명대오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고 공자이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예다마 무적의 총대를 앞세우고 조국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선군조선의 앞길에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김 용 진

당창건기념탑이 전하는 이야기

구성부분을 이루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상징하는 마치와 낮과 붓 그리고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을 상징하는 원형다... 이윽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생각깊으신 어조로 자신께서 당창건기념탑형성시안을 지난 해에 비준해주셨는데 수령님께 보여드리지 못하였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의 눈굽은 저도 모르게 젖어들었다. 조국땅에 만민대계의 기념비들이 일떠설 때마다 것처럼 기뻐하시던 환한 미소를 지으 시던 어버이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 로동당시대의 또 하나의 기념비로 웅장하게 일떠선 당창건기념탑을 보신다면 얼마나 감회가 깊은 시라. 잠시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당창건기념탑을

보다 훌륭히 완성할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전해 11월에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당건설업적을 만대대 길이 전하며 수령님께서 창건하신 우리 당을 명실공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강화발전시켜나가시려는 드립 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원형발전전에 《조선인민의 모 는 승리의 조지까지도 향도자 인 조선로동당 만세!》라는 구호를 부각하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당창건기념탑의 위치와 편편하여서 도 만수대안역에 수령님의 동상이 모셔져있고 그 축선상에 당을 상징한 기념탑이 놓이 게 하였는데 아주 좋다고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리고 당창건기념탑형성안이 완성되고 건설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에는 작공모임을

같은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지닌 우리 당과 인민만이 창조할 수 있는 대기념비이라고, 당창건기념탑은 주체혁명위업과 인 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투쟁 하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 조선로동당의 상징이며 전체 인민이 당과 수령의 뒤리에 한 마음을 뜻으로 굳게 뭉쳐 나가는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의 상징이라고, 당창건기념탑은 승리와 영광으로 아로써지던 우리 당의 자랑한 투쟁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보여주시는 증경자 시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세상에 떨치며 길이 빛냈것 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리며 떨치며 길이 빛날 당창건기념탑!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총경과 도덕리심을 가장 숭고한 높 이에서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계시어 우리 당은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날것이다. 본사기자 리 금 분

간석지에 새기신 기록한 자욱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평생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의 갈피에는 몸소 감람길을 헤치 시며 지난날 쓸모없이 버림받 던 온천지구의 간석지를 개간 하기 위한 구상을 펼쳐주시신 가슴뜨거운 이야기도 깊이 새겨져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수령님은 그 어느 위인 과도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혁명가, 위대한 인간이시 었습니다.》 주제 49 (1960)년 6월 어느날 온천군을 현지지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오 늘은 간석지에 나가보라고 하시며 길을 재촉하시었다. 그런데 간석지로 들어가 는 길목에서 갑자기 차가 멈춰섰다. 길이 너무 험한데다가 질 께질퍽하여 사람도 발을 옮겨 디기가 어려웠기때문이었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그 험한 길을 앞장서 걸으시어 간석지 가 시작되는 뜰에까지 올라서 시었다. 션물로 하여 드러난 거뭇 거뭇한 땅이 눈부리 아득하 게 펼쳐져있었다. 간석지를 오메도록 바라 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는 일군들에게 저걸 보니 육심이 생긴다고, 간석지를 개간하면 알곡생산은 더 늘 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만족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좀 더 나가보라고 하시었다. 순간 일군들은 당황하였다. 똑같은로는 그 험한 길마 저 없었기때문이었다. 만류하는 일군들을 웃음어린 시선으로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괜찮소, 더 나가 봅시다, 인민을 위한 길인데 무엇을 가리겠소, 길이 없으면 우리가 이 간석지에 첫길을 냅 사디라고 하시며 먼저 걸음을 내걸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음을

옮기실 때마다 신발이 감람속에 빠지고 옷차림에는 흙방울이 튀어올랐다. 하지만 그이께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여기저기 돌이나 풀대들을 눈여겨 살펴 시면서 계속 앞서 걸음을 옮기시었다.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하여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오셨고 준엄한 전화파의 나날에는 화신 천리 불비속을 헤치시며 끊임 없는 전진길을 걸고걸으신 위대한 수령님. 전후 복구건설의 나날 우리 수령님께서 공장을 찾아, 농촌을 찾아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새기신 헌신과 로고의 자욱자욱은 또 그 얼마이던가.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길도 없는 전변을 헤치시며 간석지개간을 위한 첫길을 내시는것이다. 이윽고 치열한가운데 이르 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사방을 둘러보시며 이 간석지 를 개간하면 참 좋겠다고, 전말이 아주 좋다고 거듭 말씀하시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바다를 가로막을 위치와 구 조물공사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고 앞으로 건설할 문화주택구역까지 정해주시 면서 간석지를 대대적으로 개간하여 이곳에 기계로 농사 짓는 농장들을 꾸려주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전변에 오메달린 서계시엔 간석지를 개간하면 위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리처럼 일군들은 눈시울을 적시었다. 이렇게 되어 수 천년세월 불모의 땅으로 버림 받던 간석지에 수천봉포에 달 하는 눈물이 생겨나고 농장마 을이 새로 일떠서게 되었다. 서해의 이룩없는 간석지에 첫 자욱을 새기시며 울대없이 무성 한 땅을 나라의 알곡생산에 크게 이바지하는 후토분토 전변 시켜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길이 전하며 오늘도 가 없이 펼쳐진 간석지위에 해마다 비어삭이 물결쳐설레이고있다. 본사기자

천리마의 고향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 20년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료일군들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모신 한없는 긍지를 안고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2호초고전력 전기로를 또다시 일떠세운 강선의 로동계급이 오늘도 강철중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있다.

혁명적대고조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는 이들의 자랑찬 위훈속에는 지난 20년간 변함없이 높은 정성을 발휘하여 강선로동계급의 건강을 돌봐온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료일군들의 숨은 노력도 뜨겁게 빛나고있다.

강선로동계급의 건강문제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언제나 깊이 관심해오신 문제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천리마시대의 이슬을 한 강선로동계급의 이름을 한 명명한 불리보시며 그들의 건강을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책임지고 돌봐줄때 대한 온정 어린 가르침을 주시었다.

천이아버사상이 흘러넘치는 아버지수령님의 교시를 전달받은 아버지수령님의 은정이었던 조치에 따라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의료검진대가 현지에 도착하였을 때 온 강선망이 감격과 환희로 끓어번지었고 강선의 로동계급과 그 가족들은 경양의 사물의 손을 부여잡고 세상에 사람이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가고 하면서 가슴들을 들먹이였다.

아버지수령님 그대 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지난 20년간 강선의 로동계급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대책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가르침을 심장에 새기고 응

당 하여야 할 일을 한 이곳의 의료일군들에 두차례에 걸쳐 온정 어린 감사도 보내주시는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거듭 안겨주시었다.

집세의 위인들의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이 있었으므로 하여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은 지난 20년세월 천리마시대 영웅들을 비롯한 천리마시대 강철합격업소 강철건설자들을 위한 정성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왔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환자가 의사를 찾는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먼저 찾아가며 예방대책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보건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 기간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는 당조직의 지도밑에 강선의 로동계급의 건강을 돌봐주는것을 아버지수령님의 유훈 관철을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내세우고 여기에 특별한 힘을 넣었다. 심일철, 김영진, 박상복동무들 비롯한 종합병원의 책임일군들은 의료일군들속에 들어가 강선로동계급의 건강을 책임자로서 돌보는 사업을 힘있게 떠맡아주었다.

아버지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받아안던 영광의 그날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20년세월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는

원장, 기술부원장을 책임자로 하고 교수, 박사 등의 능력있는 의료일군들로 의료검진대를 조직하여 해마다 8월이면 현지로 파견하고있다.

올해 8월 이었는데였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앞마당에는 출발을 앞둔 뺨스를 에워싸고 어드레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붐비고있었다.

《저희들의 마음까지 합쳐 아버지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알 갔다오십시오.》

성적이 마련한 준비품을 안겨주며 손저어 바래워주는 사람들과 이에 뜨겁게 화답하는 의료일군들...

뜨거운 바래움속에 뺨스는 병원앞도로를 서서히 벗어났다. 뺨스안에서 멀어져가는 정다운 모습들을 오래도록 바라보는 기술부원장 박상복동무의 머리속에는 지나온 일들이 화면처럼 안겨왔다.

천리마 파견되는 의료일군들의 모임에서 울리곤 하던 열면 목소리들, 출발을 앞두고 열리곤 하였던 판계부원 일군들의 회, 진단설비도 제일 좋은것으로 가져가라며 교수, 박사 등 능력있는 의료일군들로 의료검진대를 구성해주던 병원책임일군들의 모습과 의료일군들의 뜨거운 방조...

20년세월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아온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의료검진대는 이렇게 병원 문을 나섰다.

종합병원의 의사들은 현지에 도착하면 전문과별로 나누어 의료봉사에 착수하고 하였

다. 진단이 명확치 않은 환자들은 집체적회의를 거쳐 진단하고 적극적인 치료사업을 진행하였다. 하루의 의료봉사가 끝난 뒤에는 집체의 문을 두드리며 왕진의료봉사도 적극적으로 벌였다.

이렇게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은 현지의료봉사와 함께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세게 받들어온 수십명의 천리마시대 영웅들과 공로자들을 병원에 데려다 집중적인 입원치료를 정성껏 진행했었다. 한하여 해마다 강선의 로동계급의 건강을 책임자로 돌보아주는 사업을 성실성으로 진행했었다.

우리는 지난 20년간 강선의 로동계급을 위해 바친 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의 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다 전하지 못했다. 다만 우리와 만난 사회전문영웅의 의사인 교수, 박사 권영호동무가 보여준 전투사투력과 같은 부두투혼한 치료실적은 좀처럼 풀리지 않아 이야기를 아예에 전한다.

...

담담담으로 열열열이 완전히 막힌 강선의 한 오렌 로동자가 소회기전문병원에 실려왔다. 환자의 온몸에는 황달이 오고 의식조차 없었다. 생명을 구할 자라면 먼저 중독상태부터 풀어야 하였다. 당시 과장이었던 권영호동무는 의사들인 김장진, 조동희, 간호진 김연숙동무들 비롯한 과의 의료일군들과 협의를 거듭하였다. 협의의 결론에 따라 강한 해독대책을 시급히 취하였으나 환자의 중독상태는 좀처럼 풀리지 않

았다. 환자의 상태는 그야말로 절망적이었다. 전문과적회의를 위해 달려온 다른 전문병원의 오렌 의료일군들마저 천천히 도리머리를 저었다. 실망과 불안의 그림자가 모두의 얼굴에 어둠이 드리웠다. 누구도 말이 없었다.

이때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며 과장의 목소리가 울렸다. 《우리 환자가 쓴 덕성실의 그 대목을 다시 새겨봅시다.》

이제는 덕성실기 《여기가 천리마의 고향입니다》를 쓴 글로 위우고도 남음이 있는 그가 무엇때문에 또 그것을 새겨보고도 하는지 모두가 알고있었다.

《동무들! 우리의 피와 살을 바쳐서라도 우리 수령님께서 그토록 애기시는 용해공을 살려봅시다.》

심장을 치는듯 한 과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새겨들으며 의료일군들은 잠시나마 망설이었던 자신들의 마음을 재빨리 하였다.

인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하늘길, 바다길도 열어주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자신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일을 믿는다고, 세상에 가장 우월한 우리의 인민적인 보건제도를 믿어내라고 하시니 하늘같은 믿음을 보답하는 길은 바로 저 영웅과 같은 사령에 처한 환자들을 기적적으로 살려내는데 있음을 다시금 자각한 의료일군들은 꺼져가는 생명을 두고 실명을 얻었다는 뼈저린 자책을 안고 다시금 일떠섰다.

소생전투를 벌이기를 몇십

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아슬아슬한 순간들을 수시로 극복하며 순간도 감시를 떠나지 않고 대책을 세우자니 의료일군들은 극도로 긴장해졌고 지칠대로 지쳐버렸다. 피로에 지칠대로 지친 육체를 재빨리하자고 의료일군들은 때때로 자기들의 허벅살을 꼬집곤 하였다. 러갈러진 입술들, 출혈된 눈들...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물러서지 않았고 서로 등을 떠밀며 자진하여 환자를 돌보았다.

그야말로 인간의 정신력을 검증하는 치열한 전투였다. 한 차례의 치료조작을 놓고도 이물사이에는 심각하고도 책임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고도로 긴장된 의지력과 뜨거운 정성을 발휘하면서 끝내 환자의 중독을 해체하는데 성공하였다.

정성의 꽃이던 환자는 몸에서 황달이 적다 빠지면서 웃으며 이야기조차 하게 되었다. 삼복자를 타고 산보도 할수 있게 되었다. ...

들수룩 수줍음을 울려주는 의사의 이야기였다.

집세의 위인들의 송고한 뜻을 받들어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모든 전문병원들에서 꽃피고있는 맑고많은 사랑의 이야기는 이곳 의료일군들의 심장의 노래처럼 우리의 가슴에도 뜨겁게 스며들었다.

스무해동안 해마다 입원치료를 받는 강선의 오렌 용해공들을 위해 꼭꼭 생일상을 차려주고 입원기간 선택은 물론 내의 유와 눈에 꼭 맞는 안경도 마련해주었다는 최인규과장과 조금희의 간호원들 비롯한 신진전문병원의 의료일군들에 대한

이야기, 안해와 함께 영양식으로 풀과 보약을 마련해주어 환자의 두볼을 뜨겁게 적셔준 기초 및 로인학연구소의 의사 최광수, 입원치료 전기간 강선의 리완설박사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친누이, 친자식이 되여준 피부과 의료일군들, 기능회복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한 회복치료실의 의료일군들 그리고 과장들의 정성품, 김영진, 김통철, 허광철, 교수, 박사 김장진, 박사, 부교수, 인민 의사 한덕현, 의사들인 최동재, 최성덕, 리상우, 최창일, 박효준, 리명철, 조계사 채경관, 간호원들인 권명희, 김국환, 박은정 등 알개모르게 바쳐온 이곳 의료일군들의 헌신적인 정성의 그 낮과 밤들에 대한 이야기...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두차례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그 사랑에 기어오 보답하고자 초고전력전기기로의 규모를 정하고 공중설계, 제작을 주도했다는 김일성상제만인인 허인환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

1990년에 심한 심장질환과 위궤양에 이환되어 집결전 저는 그때부터 조선적십자종합병원에서 3년간 집중치료를 받고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몇몇전에는 또다시 공팔압전단을 받았지만 종합병원의 비요기전문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두번이나 소생하였습니다. 집세의 위인들의 사랑과 온정이 없었더라면, 의료일군들의 정성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제가 어떻게 초고전력전기기로살아나 있었겠습니까?

만나뵈는 영광을 지닐수 있었겠습니까.》

사랑과 온정을 전하는 심장의 목소리는 그만이 터지잖았다.

연구사인 70대의 박계근, 1호, 2호초고전력전기로설계에 참가하였던 선군시대 공로자인 50대의 장두일, 40대인 동북부기상장 김정남동무를 비롯하여 강선의 로동계급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이었다. 강선을 떠나 종합병원에 들어 서면 정말 모두가 등등 떠날터 리우며 치료를 받았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위해 온 것은 인원병동의 성원들만이 아니었다. 외래종합진료소를 비롯하여 약부분과 실험검사부문 일군들, 후방부와 운수과 등 종합병원의 모든 종업원들이 강선의 기술자들과 로동자들, 일군들의 소생과 치료, 건강회복에 진심을 바쳤다. 또한 천리마구역의약품관리소의 약무일군들과 천리마구역인민병원, 량합기업소 종합진료소의 의료일군들의 마음도 합쳐졌다.

이 나날 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떠나지 않는 생각은 오직 하나, 자기들에게 그토록 애기고 사랑하시는 강선의 로동계급의 생명을 맡겨주신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단 한가지 생각뿐이었다. 그것으로 하여 의료일군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킬수 있었고 치료사업에 언제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조선적십자종합병원의 의료일군들과 의사, 간호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영원히 받들어 강선의 로동계급을 위한 사랑과 정성의 길을 역세게 걸어갈것이다.

본사기자 오 현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기념우표 발행



국가우표발행국에서는 최근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기념우표를 발행하였다.

기념우표에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주제 99 (2010). 9. 28》이라는 글발이 찍혀있으며 창공높이 휘날리는 조선로동당기와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의 다함없는 호모의 마음을 담아 활짝 피어난 김정일화화 형상되어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천만군민의 감격을 반영한 우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강성대국건설을 다그쳐나갈 군대와 인민의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

신념의 구호에 비낀 교육자의 불같은 열정

그와 함께 학교실적의 적극적인 방조임에 실력전의 앞장에서 달려온 나날들이 주마등 같이 흘러갔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원들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따라 교육사업의 성과와 조국의 미래인 새 세대의 질적상대가 규정됩니다.》

몇몇년 어느날 리선일동무의 물리수업을 교장, 부교장이 참관한적이 있었다. 그날 수업의 부족점을 예리하게 파악하며 과장 박인봉동무가 한 말이 심장을 쫓았다.

후대교육을 담당할 우리 교육자들의 인생길에는 언제나 공백이 없는 직선만이 있어야 한다고.

온밤 잠들수 없었다. 성스러운 교단에 세워주고 젊은 나이에 분과장으로, 10월8일을 범교수자로 키워준 당의 믿음에

강중학교 분과장 리선일동무

대한 보답의 열정으로 심장을 뛰이지 못하고 열마 되지 않는 교육현안과 성과에 만족하여 자진한 과 세 교수방법탐구의 길에 저도모르게 공백을 남겨온 자신을 끝없이 책망하였다.

학생들에게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 백을 알아야 한다고, 선군시대 교육자라면 자질향상과 교수방법탐구라는 두개의 머니를 든든히 갖추고 부단히 불어나갈 때만이 안겨준 직업적책임의 무게를 계속 빛내어나갈수 있다며 학교일군들의 앞장에서 서서 세차례 일꾼실력전의 불바람은 리선일동무들 더욱 분발시켰다.

일군들의 적극적인 방조임에 교수실현과 밀접히 결부하여 자질향상사업을 이룩하게 내밀었다. 감수되어 예비교로 탐구심이 강한 학생들의 사고를 끝없이 개발시키면서 그들이 맡고있어하는 문제들에 좋은 대담을 줄수 있게 다방면적인

희열속도장조자들이 몸길막막장에 초석같이 새겨넣은 뜻 깊은 글발,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대정신으로 내세워주신 신념의 구호,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리선일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구호를 보면 불수록 조국의 천만년미래를 책임져야 할 교육자의 사명감으로 하여 어깨가 더욱 무거워집니다. 정말이지 오늘의 한초한초가 10시간, 100시간잠잠이로 귀중합니다.》

이렇게 심장에 새긴 신념의 구호와 더불어 리선일동무는 온늘의 성과에서 기쁨보다 먼저 더없이 중요한 후대교육사업의 전초병전 자기의 본분을 깊이 자각했고 그래서 스스로 새로운 돌격구령을 내렸다. 학교의 모든 일군들과 교원들이 조국을 역세게 떠날터 거둬들여 더 많이 자라게 위한 실력전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섰다.

—사회주의강성대국승리의 래일을 위하여, 부강조국의 천만년미래를 위하여!

본사기자 오 철 룡

조선로동당대표자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것과 관련하여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 주조 주바공회국 특명전권대사가 28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영일동지와 박관광 부부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연회에서는 호세 마누엘 갈레고 몬타노특명전권대사가 연설하였다.

그는 당대표자회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변함없이 높이 추대하고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것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 역사적인 날들을 돌켜보며 김일성주석동지의 빛나는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회고하게 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올해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가 글들을 발표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한 미국과 남조선피로들의 책동을 규탄하고 사회주의건설과 나라의 자주권,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편대성을 표시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구바와 조선사이의 친선관계는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김영일동지의 깊은 관심속에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조선인민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기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를 바라며 구바당과 정부, 인민의 이름으로 조선로동당의 강화발전을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김영일동지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로동당대표자회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당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구바동지들의 뜨거운 마음을 깊이 느끼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영일동지의 선군혁명명도따라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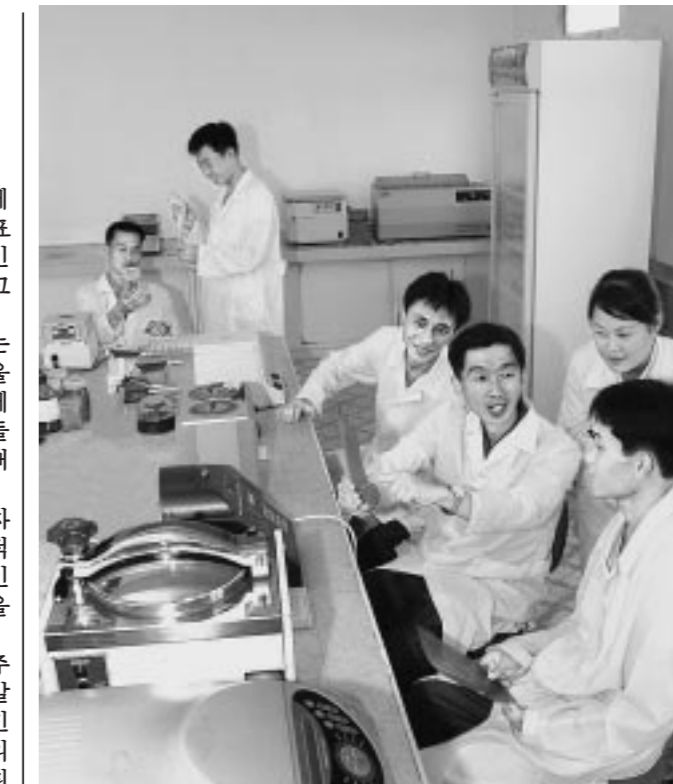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와 편대성을 표시해주고있는 구바공산당과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현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우리 인민이 존경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령도밑에 구바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자기 일처럼 진심으로 기뻐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는 앞으로 나라의 자주권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지지와 편대성을 보낼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반제반미투쟁과 사회주의를 위한 길에서 맺어지고 발전되어온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리라 확신을 표명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의 건강을 축원하며, 존경하는 피델 카스트로 루스동지와 라울 카스트로 루스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 일념으로 과학연구 사업에서 창조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농업과학원 농업생물학연구소에서— 리진명 찍음

로씨야대사관 성원들 고창형동맹에서 친선로동

알페리 쉬히린 주조 로씨야 연방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28일 천리마구역 조선로씨야친선 고창형동맹장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손님들은 농업생산의 주인된 자각을 안고 당면한 가을걷이를 다그치고있는 농장원들의

일손을 도와 벼밭공을 하였다. 특명전권대사는 조선로동당 창건 65돐을 성대히 경축한 기쁨을 안고 고창형동맹에서 친선로동을 하였다. 대사관성원들은 농장에 지원 물자를 넘겨주었다.

로씨야방문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출발

로씨야를 방문하기 위하여 리춘근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이 28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리해봉 조선중앙통신사 부사장이 대표단을 전승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21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 개막

제21차 전국프로그램경연 및 전시회가 개막되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을 받들고 온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최첨단을 통과하고 생산공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는 과정에 개발한 응용프로그램 1300여건이 여기에 출품되었다.

경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며 금속, 전력, 석탄공업,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생산을 추켜세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가치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번에 많이 나왔다.

체계 및 보안, 인공지능 및

조선적정보처리 등 15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연 및 전시회에서는 우리 식의 프로그램기술을 발전시키며 생산공정을 CNC화하는 파장에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소개선진화고 정보기술의 교류, 프로그램 붐사도 하게 된다.

개막식이 28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태복동지와 전하철내각부총리, 김용진 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철 국가과학원 원장, 판계부원 일군들, 전국 프로그램개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최상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부위원장이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나라의 정보과학기술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면서 이 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모든 참가자들이 이번 경연 및 전시회를 통하여 우리 식의 프로그램개발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널리 알리고 그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다.

중국에 가는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대표단 출발

중국에서 진행되는 2010년 상해세계박람회 청년지도자연대에 참가할 김일성

조선과 브라질 두 경제기술협조에

주조 브라질련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이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나라 정부사이의 관 협정 조인

체류하고있는 브라질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리용남부총장과 아르날두 카릴류특명전권대사가 협정문에

출발하였다.

비행장에서 장철형 청년동맹중앙위원회 비서와 목위성 주조 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관 대표단을 전송하였다.

